

# 국어학 연구에 전기 가져온 두 책

《훈민정음》과 《동국정운》... 각각 안동·강릉서 발견

“한글은 아마도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모든 문자 중에서 가장 과학적인 체계”라는 라이샤워·페어뱅크 교수의 평가는 세계 언어학계의 관심을 한글에 돌리게 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는 《훈민정음》(해례본)이 1940년 민간에서 발견된 이후 이에 대한 연구가 크게 진전된 데 힘입었다.

현재 국내외를 통틀어 오직 한권밖에 없는 《훈민정음》(목판본·국보 70호)을 처음 찾아낸 이는 《조선소설사》로 유명한 국문학자 김태준(金台俊, 1905~50)이다. 그는 경성제대를 나와 1930년대에 명문학원 강사를 거쳐 경성제대 강사를 지냈는데, 고향이 경북 안동인 한 학생의 집에서 《동국정운》(東國正韻)과 함께 《훈민정음》을 찾아냈다. 그러나 이 책들을 사들일 만한 돈이 없었던 김태준은 이를 간송 전형필(1906~1962)에게 연결해주어 결국 오늘의 간송미술관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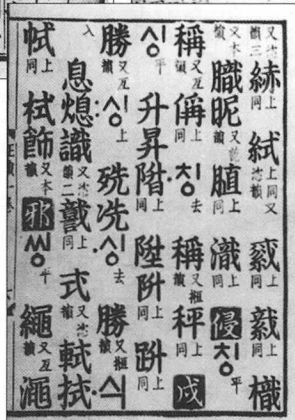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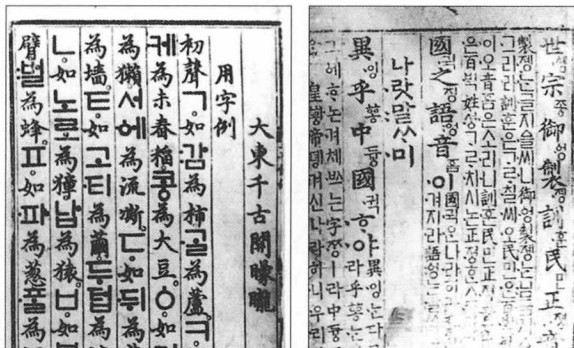
《훈민정음》은 한글이 창제된지 3년 뒤인 1446년(세종 28) 집현전의 정인지·신숙주·성삼문·최항 등 여덟 학사가 훈민정음의 창제목적과 글자꼴의 원리 등을 해설한 것으로 ‘해례(解例)’가 붙어 있어 흔히 ‘해례본’이라 불린다. 이 ‘해례본’은 한문해설서인 데 비해, 이를 한글로 번역한 ‘언해본’(국역본)이 따로 있다. 이 국역본 《훈민정음》(보물 745호·서강대 도서관)은 한문본 《훈민정음》의 예의편(例義篇)만을 국역한 것으로, 1459년(세조 5) 목판본으로 찍어낸 《월인석보》의 책머리 부분에 실려 있다.

《훈민정음》은 《동국정운》과 함께 1940년 국문학자 김태준이 안동에서 찾아냈다. 그중 《동국정운》은 6권6책 중 1·6권 2책뿐이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1972년 그 완결본이 강릉에서 발견되어 국어학계를 떠들썩하게 했다.

《훈민정음》과 함께 안동지방에서 발견된 《동국정운》(국보 71호·간송미술관)은 우리의 한자음(漢字音)을 바로잡기 위해 신숙주·최항·박팽년 등이 왕명으로 편찬, 1448년(세종 30년)에 간행한 책으로, 《훈민정음》과는 뿔 수 없는 귀중한 자료이다.

그런데 이 《동국정운》 간송본은 원래 6권 6책 가운데 제1권과 제6권의 2책뿐이어서 오랫동안 이동림(동국대)·유창균(영남대) 교수를 비롯한 전문학자들이 나머지 부분을 채구(再構)하기 위해 노력했었는데, 1972년 1월 6권6책의 완결본이 강릉에서 발견됨으로써 국어학계를 떠들썩하게 했다.

이 《동국정운》 완결본(국보 142호·건국대도서관)은 조선조 중종 때 이조판서·우참찬 등을 지낸 심언광(沈彦光, 1487~?)이 생전에 아끼던 수택본(手澤本)으로서, 그의 18세손 심교만(당시 강릉시립도서관 사서



《훈민정음》 해례본 (1446·국보 70호=위 왼쪽)과 언해본 (국역본, 1459·보물 745호). 아래는 ‘초주 갑인자’와 고딕체 한글활자를 섞어서 찍은 《동국정운》(1448·국보 71호, 142호)의 본문.

과)씨가 가보로 간직해오던 것을 건국대도서관에서 80만원에 사들여 학계에 공개함으로써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 두가지 《동국정운》은 동일한 인쇄판으로 찍어낸 원본인데, 본문에 보이는 고딕체의 한글활자와 큰 한자는 목활자이고, 서문과 작은 글자는 ‘초주 갑인자’(8회 참조)로 찍은 것이 특징이다. (W)

# 출판저널

통권 제213호 / 1997년 5월 5일 발행

발행인 — 정진숙  
 편집인 — 전병석  
 인쇄인 — 이일수  
 편집위원 — 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증환  
 편집주간 — 이승우  
 편집장 — 김지원  
 기자 — 박남정 마정미  
 최성일 이현주  
 디자인 — 윤정자  
 사진 — 한준호

업무부장 — 윤동호  
 업무·광고 — 이희천 김유희  
 김동필 천창환

(재)한국출판금고  
 상임이사 — 최학수  
 총무부장 — 이정수  
 전화: 732-1434~5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출판저널: 110-190 서울 종로구  
 시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 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규정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리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차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딱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붙임하거나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 출판저널

정기구독 문의  
**732-1433**

\* 1년분(22호)  
 40,000원  
 \* 반년분(11호)  
 22,000원

### 표지고민?

디자인 예원이 있습니다  
 T.548-5420,  
 F.3444-1515



표지디자인, 광고디자인, 정기 간행물 등  
 출판과 관계된 모든 작업  
 ... 디자인 예원

GOOD DESIGN GOOD PARTNER

소박한 심정에, 소신껏

표지디자인



표지에 관한 스트레스 —  
 이제는 저희에게 맡겨 주십시오  
 전화부터 주시면 대항관계자료를  
 팩스로 보내 드립니다.

**양무리**  
 출판미술의 모든 것

TEL 267-0396, 272-8097

좋은 느낌

**빈/칸/만/들/기**

일러스트레이션  
 만화기획  
 캐릭터 개발  
 출판사진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66-56 대동빌딩 302호  
 전화 838-4350 팩스 838-4350  
 핸드폰 011-769-4350